

청소년의 소진 경험에 관한 연구 -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

김경희* · 권혜진* · 염순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A Study Exhaustion Experiences in Adolescents - Samples of 12th Grade Examinees -

Kim Kyung Hee*, Kwon Hye Jin* and Yeoum Soon Gyo**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a basic framework to analyze specific experiences of examinees so that which nurses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reactions of examinees and, further, to provide better nursing treatments to them. This study follows Strauss & Corbin's analysis tool (1990). This basic framework identifies the specific mental reactions in a process away from the "being tightened" state. The main factors explaining this process include the 28 following variables : anxiety, being burdened, being suppressed, lack of agency, being suffocated, term pressure, expectation pressure, grade pressure, firmness, feebleness, helping others, being disturbed, watching others, off ficiousness, staightening on, depending on, getting along with, getting out of, shooting out, giving up, being alone, devoting, bracing up, being industrious, being harassed, being distressed, troubles, and quitting. Twelve variables are factored from the above factors which include pressure, being tightened, terms, expectations, grades, will, friends, family, open-minded confrontation, close-minded confrontation, pursuing, and wandering around. The Examinees' state of being tightened is first developed, watched by others, and finally resolved causing students either to pursue (positive reactions) or to wander around (negative reac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following sixteen hypotheses are developed : 1. Students are less tightened in the first term. 2. Students are more tightened in the second term. 3. Students with higher grades feel less tightened. 4. Students with lower grades feel more tightened. 5. Students with higher expectations feel more tightened. 6. Students with lower expectations feel less tightened. 7. Students who are less tightened confront open-mindedly. 8. Students who are higher tightened confront close-mindedly. 9. Students with a strong will confront open-mindedly. 10. Students with a weak will confront close-mindedly. 11. Students who have more sincere friends confront open-mindedly. 12. Students who have less sincere friends confront close-mindedly. 13. Students with family support confront open-mindedly. 14. Students with little family support confront close-mindedly. 15. Students confronting open-mindedly pursue. 16. Students confronting close-mindedly wander. We identify the following four relations from the data analysis : 1. Students with average grades in their first term are more tightened from high expectations and have a tendency to wander if they have less supporting families even if they also have a strong will and sincere friends. 2. Students with low grades in their second term are less tightened because of low expectations and have a tendency to wander if they have a weak will

*본 연구는 199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and few sincere friends even if they have strong family support. 3. Students with high grades in their second term are more tightened with high expectations and have a tendency to pursue confrontations open-mindedly if they have supporting families and a strong will even if they have few sincere friends. 4. Students with average grades in their first term are less tightened from fewer expectations and have a tendency to pursue confrontations open-mindedly when they have more supporting families and sincere friends even if they have a weak will. A Student's degree of being tightened are affected by grades, terms, and expectations. Being tightened is resolved positively or negatively based on will, friends, and family. We conclude that will, family support, and sincere friends cause students to confront "being tightened" open-mindedly. We also conclude that practical nursing for students who are tightened have to focus on creating environments in which students are able to confront open-mindedl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숙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해나가면서 건전한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간관계 및 직업관을 확립하여 장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적응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받아 성인으로서의 주체성 및 인생관을 확립하여 미래의 생활을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Pfefferbaum, 1986).

그러나 오늘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대학입시에 따라 좌우 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입시위주의 사회풍토로 인해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에서는 도덕품성 및 정서적 교육 등 도외시 하고 지식전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성적위주의 일류 집착증이 이러한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은 주변의 집중된 관심과 과잉기대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공부만을 요구하는 학교와 가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부담감을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적된 부담감으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어있는 수험생이 고도의 경쟁이 요구되는 입시 상황에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될 때 그들은 현실적인 욕구불만과 좌절감을 비정상적으로 발산시키려고 하

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대입준비과정에서 고3 수험생이 당면한 문제들에 부적절한 대처양상을 보일 때 야기되는 문제행동 및 신체·정신장애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어져 왔다(Solomon, 1974; 나철, 1978; 이길홍, 1985; 김선미 외, 1992; 한승희, 199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입시라고 하는 정신, 사회적 부담감은 발달과정상 청소년기에 있는 고3 수험생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수험생의 경우에는 신체·정신장애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정신장애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고3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3 수험생은 대입준비과정에서 무엇을 느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나가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3 수험생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수험생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규명하여, 간호사들이 수험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생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당당한 성인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3 수험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당면하는 문제

인한 사회적, 심리적 경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II. 문헌고찰

1. 수험생의 대입스트레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모나 수험생의 일류집착증이나 신경증적인 과잉기대와 같은 이상 교육열은 성장과정에 있는 수험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은 시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할 수 없을때 죄책감이 생기고,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해 자기 훼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갈등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시험불안이 유발된다고 한다(Sarason & Davison, 1960).

이러한 시험불안으로 야기되는 대입스트레스는 대학입학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게되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이며, 대학입사라고 하는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고3 병은 사회성 복합 노이로제이다(한동세, 1972; 이길홍, 1985).

대입스트레스가 고3병을 유발하는 원인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의 같은 다양한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백명기 외, 1988).

첫째,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하고 사회 심리적 적응상의 어려움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정서적 격동기 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은 욕구좌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매년 수험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정원의 증가는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입경쟁율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의 모든 관심은 성적과 수험시기에 집중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들간의 치열한 경쟁 및 성적에 대한 지나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등으로 수험생은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셋째, 매년 변화되는 입시제도는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혼선을 가져와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수험생의 심리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고도로 경쟁이 요구되는 입시상황에서 입시

전 예기불안이 고조 될 수 있고 입시 실패에 대한 거세 불안이 입시전에 절정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수험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된다.

고3 수험생은 이러한 원인적 요인에 의해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의 정도가 경미할때에는 두통, 피로, 현기증, 시력장애, 주의집중곤란, 기억력 장애, 불면증등 정신, 생리성 신체증세를 일으키고, 심할때에는 의욕상실, 식욕부진, 성욕감퇴, 대소변 곤란, 우울정서 등을 보여주며, 극심할 때에는 잠재해 있던 정신병 증세가 활성화되어 예기치 않았던 정동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증이 발생한다(백명기 외, 1988).

고3 수험생의 임상적 호소는 입시 2~3개월전에 절정에 이르고 장기 치료 수험생의 경우에도 11월에 증상이 악화 되는데 이러한 고3 병은 대개 시험이 끝나면 고비를 넘긴 듯한 후련함을 느끼면서 불안, 초조 등의 표면적 증상이 소멸되는데 이는 대입스트레스 증후군이 전투신경증이나 산후정신장애, 또는 폐경기 정신장애 등과 같은 일과성 상황장애 처럼 일시적으로 격심한 증세를 보여주다가 얼마후에 갑자기 소멸되는 응급질환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이길홍, 1985).

이와 같이 고도의 경쟁이 요구되는 입시준비 과정에서 대입스트레스는 수험생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는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된 수험생은 욕구좌절과 체념속에서 겪게되는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정서적 불안, 인격적 분열, 성격적 결함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적응생활을 하게된다(김광수, 1990).

2. 대입스트레스로 인한 수험생의 슬럼프(slump) 유형

대입스트레스로 인한 슬럼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민병근 등, 1987).

1) 탈진형 슬럼프

과중된 부담으로 인해 지친상태에서 생기는 슬럼프로서 마치 패잔병처럼 기운도 없고 식욕도 없으며 멍청해진다.

무리하게 몰아치기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4당 5락'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각성제를 남용하면서 잠을 줄이려는 수험생에서 볼 수 있다. 결국엔 자신의 체력이나 실력을 적절히 안배하지 못해 신체 질환이 생기기 쉽고, 자아의 힘이 약화되고, 저항력이 약해져 혼돈상태에 빠지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2) 절망형 슬럼프

가정과 학교에서 계속된 실패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감이 생겨 의기소침해지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드는 슬럼프로, 이는 가정 내·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며 부모가 단점만을 지적하면서 칭찬에 인색한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3) 권태형 슬럼프

똑같은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로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슬럼프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기사들이 단조로운 길을 주행할 때 자신도 모르게 멍청해지고 잠에 빠져드는 고속도로 최면현상(highway hypnosis)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권태감에서 생긴 슬럼프이다. 이는 변화가 너무 심해도 문제가 되지만 변화가 너무 없고 무기진 조해도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4) 공허형 슬럼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가치를 상실했을 때, 누구나 대상상실로 인한 애도반응이 생기고 그 반응으로 공허감에 빠지기 쉽다. 더우기 수험생들은 시험준비로 인해 그간 즐겨오던 취미를 포기해야 하고, 사귀던 친구와도 잠시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3 초기에 외로움과 더불어 허탈감에 빠지기 쉽다.

5) 불안초조형 슬럼프

대학입시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예기불안이나 탈락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불안 초조하겠지만 가족의 과잉기대나 일류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음만 급해져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두통이나 심장변화가 심해 무력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입시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고3으로 진입된 학생들이나 입시실패를 경험한 재수에선 불안 지수가 더 높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신의 능력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과보상 기저로 인해 무리한 입시전략을 짜고 강행군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면서 역시 불안 초조해질 수 있다. 부모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자녀와도 견해 차이가 심할때,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슬럼프에 빠져들 수도 있다.

III. 연구방법

고3 수험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이란 현상을 귀납적으로 연구하여 나온 것으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검증된 것이다. 즉 양적 연구에서와 같이 이론과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이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가설이 없이 연구를 시작하여 자료에서 의미있는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개념들과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특히 Mead(1934)가 제시한 상징적 상호교섭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그 이론적 배경을 둔 것으로서(Chenitz & Swanson, 1986), 인간행위 혹은 인간집단 행위의 변화과정을 밝히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Mead의 상징적 상호교섭론은 1969년 Blumer에 의해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확립되어 졌는데, 그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교섭론은 다음이 세가지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행위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인간, 혹은 기관, 이상, 타인의 행위, 혹은 이러한 것들의 복합체일 수도 있다. 즉,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이 사물이 될 수가 있다. 둘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는 사물 그 자체가 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미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해석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의미는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함을 나타내며, 이는 인간을 어떤 자구에 대하여 무조건 반사하는 소극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를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가정에 기초를 둔 상징적 상호교섭

론에 그 철학적 바탕을 둔 근거이론방법은 인간의 행위와 상호행위과정 혹은 의미의 변화과정을 탐색하는데 무척 가치있는 방법으로서,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탐색하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1996년 1월부터 1996년 11월 사이에 본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모두 만 17세~18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다.

면담시 관계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깊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소개 또는 추천을 받아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대상자들은 모두 기꺼이 면담에 응해 주었으며, 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뒤 면담과정은 전부 녹음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휴대용 녹음기와 현장 노트였으며, 면담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이론적 표집 대상이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대상자와는 전화통화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자의 경우 방과 후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내의 조용한 교실이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상자는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치킨집을 이용하였으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상자는 대상자의 집이었다.

면담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와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처음 15분에서 20분간은 대상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형성에 주력한 후 나머지 30분에서 1시간동안은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이 지속되는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집중하면서 개방형의 특성을 지닌 서술적 질문과 범주화 질문 및 대조적인 질문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의도적으로 대상자의 세계에서 연구대상의 역할을 취해보려고 하였고, 또한 연구대상자의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지속적인 비교, 분석과정을 통하여 현상을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반영, 비교하면서 각 대상자에게 나타난 개념이 다음 대상자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면담을 계속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자와의 면담은 개방적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광범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상자와의 면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자와의 면담결과에 대한 개방 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들을 고려하면서 차원적 수준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질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면담을 계속해 나갔다.

네 번째 대상자와 만난후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금까지 분석결과 나타난 개념들과 비교 하였으며, 이렇게 보다 높아진 이론적 민감성에 기초하여 다음 대상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상자들과의 면담은 앞서 면담한 4명 대상자의 자료를 분석하고 부호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외에 추가로 더 많은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면서 미흡한 범주를 채웠다. 동시에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 상호작용 변화에 초점을 맞춘 면담을 시행하여 범주간의 관계와 가설적 관계개요를 확인해 보았다.

2. 자료분석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면담은 문자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분석에서는 특히 Strauss & Corbin (1990)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연결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와 기술들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고3 수험생이 대입준비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부모, 친구, 주변인물 등과 어떻게 상호행위를 해나가는가 하는 과정에 맞추면서,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개념들을 인과적 조건→중심현상→맥락→중재상황→전략→결과 등으로 연결시키는 모형으로서, 특히 현상의 과정이나 시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1) 개념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결과 나타난 개념은 128개로 다음과 같다.

내신등급, 수능점수, 모의고사점수, 지나친 배려, 지나친 관심, 지나친 주의, 떠받들, 따가운 시선, 잔소리, 심한간섭, 활동영역제한, 몰아부침, 비교당함, 당연시함, 닭갈해냄, 미움, 경쟁심, 엉뚱한 바램, 경계, 눈치봄, 숨김, 속임, 신경씀, 시치미뻔, 힘겨움, 압박감, 꼼작못함, 답답함, 짐스러움, 꼭매임, 짜증남, 애담, 마음졸임, 조바심, 안달, 촉박감, 여유없음, 긴박감, 1학기초, 1학기말, 2학기초, 2학기말, 지나친시대, 있는 그대로봄, 별 기대안함,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해냄, 뿌리침, 실천함, 뜻대로 안됨, 끌려다님, 근면한 친구, 성실한 친구, 이끌어줌, 태만한 친구, 불성실한 친구, 유혹함, 믿어줌, 기다려줌, 풀어줌, 질책함, 속박함, 감시함, 정신차림, 계획세움, 정리함, 보충함, 학원등록, 독서실등록, 영적의존, 부모님상담, 선생님상담, 친구만남, 얘기나눔, 이성친구 만남, 커피숍출입, 노래방출입, 오락실출입, 짜증부림, 다툼, 소리지름, 자학, 자책, 자포자기, 혼자다님, 괴해다님, 배회, 수면취함, 말안함, 비디오방 출입, 술집출입, 음주, 흡연, 컴퓨터즐김, 목표재확인, 자기다짐, 자기확신, 일기쓰, 해나감, 소신껏함, 최선을다함, 정신쏟음, 변비, 설사, 복통, 두통, 소화불량, 탈모, 불면, 악몽, 가위눌림, 쌓임, 어긋남, 집중력저하, 창피함, 웅졸해짐, 치사해짐, 소용없음, 해도안됨, 절망감, 소외감, 그냥시간보냄, 탄생각만 남, 몰려다님, 성가심, 귀찮음 등이다.

2) 하위범주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128개의 개념들을 개념적으로 비슷한것끼리 모아 다음과 같이 29개의 하위범주로 범주화 하였다.

불안, 부담, 억압, 치열, 도리없음, 숨막힘, 학기별, 기대수준, 성적분포, 다부짐, 나약함, 도움됨, 방해됨, 지켜봄, 참견함, 추스림, 의지함, 어울림, 벗어남, 내뽐음, 그만둠, 홀로지냄, 빠져들, 가다듬음, 나아감, 시달림, 속상함, 괴로움, 팽개침 등이다.

3) 상위범주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29개의 하위범주를 다음과 같이 다시 12개의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위압, 율매임, 학기, 주변기대, 성적,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개방적대처, 폐쇄적대처, 정진, 방향 등이다.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표 1 참조)

1)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개발과정에 따라 개방코딩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를 각각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혀보기로 한다.

【인과적 조건】 불안, 부담, 억압, 치열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 "율매임"을 발생시킨 원인 즉 인과적 조건은 "불안", "부담", "억압", "치열"등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이 대상자에게 "율매임"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난 후 좀더 성적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혹은 시험준비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을때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으로 결과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면서 배려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떠받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심적으로 부담을 갖는다. 이런 불안과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공부해야 할 시기에 무슨 것이냐 하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고3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당연히 공부만 해야한다는 주위의 몰아부침,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사사건건 비교당할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리눌리는 듯한 억압을 느낀다. 또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서로 눈치보면서 속이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고3이 되면서 겪게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은 대상으로 하여금 "율매임"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건들은 모두가 "율매임"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강도와 빈도, 기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내신등급, 수능점수, 모의고사점수	불안		
지나친배려, 지나친관심, 지나친주의, 떠받들	부담		
따가운시선, 잔소리, 심한간섭, 활동영역제한, 몰아부침, 비교당함, 당연 시험, 닭달해냄	억압	위압	인과적 조건 : 위압
미움, 경쟁심, 엉뚱한바람, 경계, 눈치봄, 숨김, 속임, 신경썩, 시치미뻬	치열		
힘겨움, 압박감, 꼼짝못함, 답답함, 짐스러움, 꼭매임, 짜증남	도리없음	육매임	중심현상 : 육매임
애담, 마음졸임, 조바심, 안달, 촉박감, 여유없음, 긴박감	숨막힘		
1학기초, 1학기말, 2학기초, 2학기말	학기별	학기	맥락: 학기
지나친기대, 있는그대로봄, 별기대안함	기대수준	주변기대	주변기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성적분포	성적	성적
해냄, 뿌리침, 실천함	다부짐	의지력	
뜻대로안됨, 끌려다님	나약함		
근면한 친구, 성실한 친구, 이끌어줌	도움됨	친 구	중재상황: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태만한 친구, 불성실한 친구, 유혹함	방해됨		
믿어줌, 기다려줌, 풀어줌	지켜봄	가족성향	
질책함, 속박함, 감시함	참견함		
정신차림, 계획세움, 정리함, 보충함, 학원등록, 독서실등록	추스림		
영적의존, 부모님상당, 선생님상당	의지함		
친구만남, 애기나눔, 이성친구만남	어울림	개방적 대처	
커피숍출입, 노래방출입, 오락실출입	벗어남		전략: 개방적 대처 폐쇄적 대처
짜증부림, 다툼, 소리지름	내뿜음		
자학, 자책, 자포자기	그만둬		
혼자다님, 피해다님, 배회, 수면취함, 말안함	홀로지냄	폐쇄적 대처	
비디오방출입, 술집출입, 음주, 흡연, 컴퓨터즐김	빠져들		
목표재확인, 자기다짐, 자기확신, 일기씀	가다듬음	풀림(정진)	
해나감, 소신껏함, 최선을다함, 정신쏟음	나아감		
변비, 설사, 복통, 두통, 소화불량, 탈모, 불면, 악몽, 가위눌림	시달림		결과: 정진 방향
쌓임, 어긋남, 집중력저하, 창피함, 웅졸해짐, 치사해짐	속상함	영킴(방황)	
소용없음, 해도안됨, 절망감, 소외감	피로움		
그냥시간보냄, 딴생각만남, 물려다님, 성가심, 귀찮음	팽개침		

고 있으며 정도의 영역은 각각 강함-약함, 잦음-드물, 장-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육매임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이 대입준비과정에서 경

험한 위압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면서 대처하는가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동이 중심현상 “육매임”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육매임”이 중심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이었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인지하는 “옹매임”은 대상자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가 처한 중재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연결코딩과정에서 중심현상 “옹매임”은 모든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압”으로 인해 발생한 “옹매임”은 고3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에 딱 옹매인체 느끼는 압박감과 수능, 일자에 쫓기는 긴박감으로 숨막힘, 마음졸임, 답답함 등을 경험하면서 나타났다.

“옹매임”의 속성은 강도, 기간, 빈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함-약함, 장-단, 잦음-드뭉이었다.

[맥락]학기, 주변기대, 성적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옹매임”은 학기와 대상자의 성적 및 주변기대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맥락으로서의 학기란 1학기초, 1학기말, 2학기초, 2학기말 등이 이에 속하고, 성적은 대상자의 성적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중 어느부류에 속하는지를 말하며 주변기대는 지나친 높은기대와 있는 그대로 봐주는 적절한기대, 별 기대안하는 낮은기대 등이 이에 속한다.

학과 성적 및 주변기대는 “옹매임”의 강도, 기간, 빈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따라 “옹매임”에 대처하는 전략이 달라지고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열거한 학기와 성적 및 주변기대는 “옹매

임”의 표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형성하였다.

학과와 성적 및 주변기대는 각각 단계와 정도, 수준의 속성을 지니며 정도의 영역은 1학기초-2학기말, 상위-하위, 높음-낮음이다.

[중재상황]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옹매임”의 전개과정은 대상자의 의지력, 주변친구, 가족성향에 따라서 달라졌다.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한데 친구들도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대상자를 믿어주면서 지켜봐주면 “옹매임”에 대한 대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개방적 대처로의 선택이 촉진되는 반면에 폐쇄적 대처로의 선택은 억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한데 친구들도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대상자를 믿지못해서 지나치게 참견하면 “옹매임”에 대한 대처는 힘겹고 어려운일이 있어도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자신속으로 삭이는 폐쇄적 대처로의 선택이 촉진되고 개방적 대처로의 선택이 억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은 주어진 상황속에서 전략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재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의 속성은 각각 강도, 성실성, 성향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함-약함, 성실-불성실, 지켜봄-참견함이었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불 안	강 도	강함-약함
부 담	기 간	장-단
억 압	빈 도	많음-적음
치 열		

표 3.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옹매임	강 도	강함-약함
	기 간	장-단
	빈 도	잦음-드뭉

표 4. 맥락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학 기	단 계	1학기-2학기
성 적	정 도	상위-하위
주변기대	수 준	높음-낮음

표 5. 중재상황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의지력	강 도	강 함-약 함
친 구	성실성	성 실-불성실
가족성향	성 향	지켜봄-참견함

[전략] 개방적 대처, 폐쇄적 대처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는 "오피매임"에 대한 대처를 영적으로 의존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상담,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도움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개방적 대처를 하거나, 힘겨운 상황에서 홀로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어려움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팽개쳐 두고 유흥장을 출입하거나 컴퓨터에 푹 빠져들어 고3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폐쇄적 대처를 한다.

이상의 모든 행동은 모두 일정한 상황 또는 맥락 속에 주어진 현상 즉 "소스라침"과 "더러움"을 관리하거나 이에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작용/반작용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인 "오피매임"에 대한 대처전략으로는 "추스림", "의지함", "어울림", "벗어남", "내뽐음", "그만둠", "홀로지냄", "빠져들" 등의 범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정진, 방향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범주 중 결과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다듬음", "나아감", "시달림", "속상함", "피로움", "팽개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정분석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과정(process)이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현상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일련의 선후관계의 형태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오피매임"의 해결과정을 다음의 세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오피매임"의 생성과정

고3 수험생은 대입준비를 하면서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 지나친 기대와 관심에 대한 부담, 주변의 따가운 시선 및 간섭과 잔소리로 인한 억압, 동료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위압을 느끼면서 생성된 "오피매임"을 인지한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어떤 힘, 즉 위압이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된 "오피매임"의 강도는 학기 및 대상자의 성적, 주변의 기대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2) "오피매임"의 표출과정

생성된 "오피매임"은 바로 표출의 과정을 거친다.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옹허매여 숨막힘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오피매임"을 표출한다.

위압에 의해 초래된 건디기 힘든 감정들인 "답답함", "꽉매임", "꿈짜못함", "애탐", "촉박감", "긴박감" 등을 동반한 "오피매임"은 주어진 맥락과 상황속에서 선택된 전략을 통하여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전략에 따라 "오피매임"의 표출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은 전략의 선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오피매임"은 개방적 혹은 폐쇄적 대처로 표출된다.

(3) "오피매임"의 해결과정

"오피매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생성-표출-해결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현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결은 방향(영킴)과 같은 부정적 해결 및 정진(풀림)과 같은 긍정적인 해결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과 함께 "오피매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해결과정은 마무리 되는데 주어진 맥락과 구조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서로 다르다.

3) 가설적 정형화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오피매임"으로 나타났고, 맥락은 학기, 성적 및 주변기대 이었으며, 중재상황은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근거자료 속에 그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맥락과 중심현상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와 중재상황과 중심현상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여 정형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오피매임"이 강하고 고3 학기가 1학기초인 경우
- (2) "오피매임"이 강하고 고3 학기가 1학기말인 경우
- (3) "오피매임"이 강하고 고3 학기가 2학기초인 경우
- (4) "오피매임"이 강하고 고3 학기가 2학기말인 경우
- (5) "오피매임"이 약하고 고3 학기가 1학기초인 경우
- (6) "오피매임"이 약하고 고3 학기가 1학기말인 경우
- (7) "오피매임"이 약하고 고3 학기가 2학기초인 경우
- (8) "오피매임"이 약하고 고3 학기가 2학기말인 경우
- (9) "오피매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 (10)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
- (11)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 (12)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 (13)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
- (14)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 (15) "오피타임"이 강하고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 (16) "오피타임"이 강하고 주변의 기대수준이 낮은 경우
- (17) "오피타임"이 약하고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 (18) "오피타임"이 약하고 주변의 기대수준이 낮은 경우
- (19)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한 경우
- (20)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한 경우
- (21)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한 경우
- (22)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한 경우
- (23)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친구들이 성실한 경우
- (24)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친구들이 불성실한 경우
- (25)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친구들이 성실한 경우
- (26)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친구들이 불성실한 경우
- (27)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가족성향이 지켜보는 경우
- (28) "오피타임"이 강하고 대상자의 가족성향이 참견하는 경우
- (29)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가족성향이 지켜보는 경우

(30) "오피타임"이 약하고 대상자의 가족성향이 참견하는 경우

4) 관계진술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오피타임", 인과적 조건은 "위압", 맥락은 "학기", "성적", "주변기대", 중재상황은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대처전략은 "개방적 대처", "폐쇄적 대처", 결과는 "정진", "방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범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고3 학기가 1학기 초일수록 "오피타임"은 약해질 것이다.

(2) 고3 학기가 2학기 초일수록 "오피타임"은 강해질 것이다.

(3)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오피타임"은 약해질 것이다.

(4)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오피타임"은 강해질 것이다.

(5) 주변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오피타임"은 강해질 것이다.

(6) 주변기대 수준이 낮을수록 "오피타임"은 약해질 것이다.

(7) "오피타임"이 약할수록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8) "오피타임"이 강할수록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9) 의지력이 강할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0) 의지력이 약할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1) 친구들이 성실할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2) 친구들이 불성실할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3) 가족이 믿고 지켜볼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4) 가족이 못믿고 참견할수록 "오피타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5) "오피타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수록 정진하게 될 것이다.

(16) "오피타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수록 방황하게 될 것이다.

5) 가설적 관계개요

본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 즉 중심현상이 어떠한 인과적 상황에서 발생되었으며, 또한 어

떠난 맥락과 중재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분석적, 서술적 형태로 기술하는 가설적 관계개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은 "옴매임"의 생성-표출-해결과정이다.

대상자는 성적에 대한 불안, 주변의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 고3이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억압, 동료들간의 치열한 경쟁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내리누르는 어떤 힘 즉 위압에 의해서 옴매임은 "옴매임"의 생성을 인지한다.

생성된 "옴매임"의 강도는 학기, 대상자의 성적 및 주변기대수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에게 생성된 "옴매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도리없이 꼭 매여 숨막힐 듯이 답답한 "옴매임"이 생성되면 대상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통하여 "옴매임"을 표출한다. 이때 대상자가 "옴매임"을 추스림, 의지함, 어울림, 벗어남, 내뿜음등의 '개방적 대처'로 표출하느냐, 그만둠, 홀로지냄, 빠져들음 등의 '폐쇄적 대처'로 표출하느냐 하는 것은 "옴매임"의 강도와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등 구조적 상황과의 상호작용과정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출된 "옴매임"의 해결은 선택된 전략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옴매임"을 '개방적 대처'로 표출한 경우, 대상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다잡고 가다듬어서 "옴매임"의 상황에서 벗어나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는 긍정적인 해결로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면에 "옴매임"을 '폐쇄적 대처'로 표출한 경우, 대상자는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옴매임"의 상황에서 시달리고 속상해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부정적인 해결로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6) 유형분석

유형은 자료분석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고3 수험생이 경험하는 "옴매임"은 "옴매임"의 강도, 학기, 대상자의 성적, 주변기대,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고3 1학기초에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옴매임이 강할 때,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하고 친구들도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더라도 가족들이 믿지 못하고 일일이 참견하면, 옴매임에 대한 폐쇄적 대처로 방황하게 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줄곧 전교 5등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오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고2때는 반에서 20~25등 정도로 떨어져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대상자의 부모님은 지난해 대상자의 오빠가 부모님이 원하는 의대에 가지 못하자 대상자가 꼭 치대에 들어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자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대상자의 성적을 모르고 있다. 고3이 되어서 성적표를 보여주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무런 말도 못하셨다고 한다.

대상자도 오빠가 부모님의 기대를 깨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꼭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나름대로 친구들이 안 다니는 독서실에 혼자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러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애가 탄다.

대상자의 주변친구들은 다 성적이 상위권이면서 학업에 성실한 편이다. 그리하여 대상자는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친구들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식사시간에는 친구들이 빨리 밥먹고 공부하는 모습에 불안하여 급하게 밥을 먹다가 보면 항상 속이 채한 듯이 거북하여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 만성적인 두통과 피로감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마음이 피로운데 집에서 오빠는 대상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자꾸 이것 저것 간섭하면서 질책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대상자는 자신의 내부에 쌓이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인지하지만 누군가에게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홀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면서 방황한다.

② 고3 2학기초에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주변의 기대수준이 낮아서 옴매임이 약할 때,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하고 친구들도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가 되면

가족들이 믿어 주면서 지켜보더라도, 옹매임에 대한 폐쇄적 대처로 방황하게 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성적은 반에서 하위권이다. 부모님은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지켜보시는 편이라고 한다. 대상자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대학교에 진학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며 속으로 대상자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애가 타지만 되도록 잔소리와 간섭은 안 할려고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고3을 그냥 담담하게 보내고 있다고 표현한다.

대상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표현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해야지 결심을 했다가도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어울려 놀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한다.

자신은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절대 거절 못한다고 하면서 학업에 성실하지 않은 주변의 친구들이 사실 대상자가 공부하는데에는 방해가 된다고 한다. 고3이 되니까 주변에서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하는 경우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 시간은 더 많다고 한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 공부를 열심히 안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도 대상자는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다. 친구들을 만나면 속마음은 터놓지 않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논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상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의 약한 의지력을 탓해 보기도 하고, 공부할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책하며 자포자기도 한다.

집에와서 부모님 얼굴보면 피로우니까 피곤하다고 감이나 자고 컴퓨터나 열심히 두들기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대학에는 꼭 들어가고 싶은데 기초가 너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 자신은 해도 안될 것 같은 생각에 공부도 제대로 되지않아 절망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 될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피로워한다.

③ 고3 2학기초에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옹매임이 강할때, 친구들이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를 주더라도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하고 가족들이 믿어 주면서 지켜봐주면, 옹매임에 대

한 개방적 대처로 정진하게 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전교 10등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의 기대도 아주 높다고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고3이 되면서 심한 심적인 압박감에 시달려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았는데 신경을 자꾸 탄데로 쏟으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여자친구는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상자는 공부만 하는 애들을 친하게 지내면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유없이 공부만 하는 모습에 더 답답해지고 부담감을 느껴서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노는 애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한다.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 재미있고 기분전환이 된다고 한다.

답답하고 공부가 잘되지 않을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오락실, 당구장에서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풀지만 자신을 믿고 지켜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정도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의지력이 강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가고 있었으며 힘겹고 어려울때는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간다.

심적인 압박감은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확신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④. 고3 1학기초에 성적은 중위권이지만 주변의 기대수준이 적절하여 옹매임이 약할때, 대상자의 의지력은 약하지만 친구들이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 가족들도 믿어 주면서 지켜봐주면, 옹매임에 대한 개방적 대처로 정진하게 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성적이 반에서 중간정도이다. 고3이 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하고 있다.

착하고 성실한 편인 대상자는 의지력이 약하여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고2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3이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 속으로 너무 늦게 시작 하지않았는가 하는 불안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한다.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학업에 성실한 편으로 대상자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3이 되면서 대상자는 주로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대상자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견해 하시며 만족해 하신다고 한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 하겠다고 한다.

대상자는 집안의 장남인 자신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부모님께 감사해 하면서 자신을 믿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이라도 열심히 해야한다고 한다.

V. 논 의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확인해보면서 간호사의 간호중재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결과 고3 수험생은 불안, 부담, 억압, 치열 등을 경험하면서 위압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대상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3이라는 무거운 힘에 움푹매이는 "움매임"의 생성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험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한국의 교육열이 빚어낸 신중병으로서 중3병과 고3병이 있다고 기술한 한동세(1972)와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고3생들과 재수생 환자들의 특유한 임상상에 대해 대입병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길홍(1985)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모나 수험생의 성적위주의 일류집착증, 신경증적인 과잉기대와 같은 이상 교육열 및 치열한 경쟁의식등으로 인해서 수험생은 과중한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과중한 심리적 중압감으로 느끼는 "움매임"의 강도에는 학기와 대상자의 성적 및 주변의 기대수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동세(1972)의 연구에서 고3병의 임상적 표현이 입시 2~3개월전에 절정에 이른다고 한 보고를 통해서도 지지되는데, 이길홍(1988)도 고도로 경쟁이 요구되는 시험상황에서 입시전 예기불안이 고조될 수 있고 입시실패에 대한 거세불안이 입시전에 절정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 분석결과에서도 대상자들은 고3 1학기 초보다 2학기 초가 되면서 "움매임"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명기(1988) 등, 김정명(1992) 등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입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입시위주의 사회풍토로 가족이나 수험생은 성적에 대한 과잉불안을 갖게되는데 이러한 과잉불안 및 가족들의 과잉기대는 고3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고3 수험생은 "움매임"의 생성을 인지하면 숨막힐 듯이 답답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움매임"을 표출하는데, 무거운 중압감에 움푹매이는 고3 수험생이 긍정적인 표출방식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표출방식을 선택하느냐는 대상자의 의지력, 주변친구 및 가족성향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은 주위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게 된다고 한 김현수(1980), 김소야자(1990) 및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및 가정환경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의 근원적 요인이 된다고 한 Bow-erman & Bahr(1973), Harris & Howard(1981), 김환복(1984), Andersen(1990), 안정순(1993) 등의 보고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고3 수험생이 "움매임"의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오락을 즐긴다거나,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하는 등의 개방적 대처로 문제를 표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는 자신을 다잡고 가다듬어서 "움매임"의 상황에서 풀려나는 반면에, 문제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숨겨둔채 혼자 고민하는 폐쇄적 대처를 하게 되면 "움매임"의 상황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속상해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마음속에 내재화된 위축과 고통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발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주변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한 권혜진(1994), 김경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움매임"에 대한 개방적인 대처로 "움매임"의 상황에서 풀려난 경우 대상자는 학업에 정진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으나, "움매임"에 대한

폐쇄적 대처로 방황하는 경우 대상자는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감, 집중력저하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에 시달리면서 자신은 공부해도 안될 것 같은 절망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긴장감, 두통, 소화불량, 사지감각이상, 주의집중곤란 등의 신체화 증상이 대입 스트레스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한 한동세(1972)와 백명기(1988)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이를 Rinsley(1980)는 고3 수험생이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증상에 관심을 갖게하여 자신은 입시부담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이득도 바라는 전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육매임”의 상황에 영키어 방황하는 고3 수험생의 경우 절망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외되어 과도한 욕구불만이나 갈등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게되어 신경증이나 불평화등의 문제행동으로 전락하기 쉽고, 기존체제의 규범에서 이탈하여 그것이 비록 규범에 벗어난 부당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채택하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된다고 한 한완상(1974), Bronfenbrenner(1976), 노윤식(1984), Lloyd(1985), 최윤진등(1991)의 보고는 방황하는 고3 수험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제시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의 경쟁이 요구되는 입시위주의 시대적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이 경험하는 “육매임”은 맥락과 중재상황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육매임”의 상황에서 벗어나 당당한 성인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3 수험생이 경험하는 “육매임”의 인과적 조건을 이해하여 위압적인 상황을 감소시킬 수 방안의 하나로, 고등학교에서는 부모와 학생 및 청소년 문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로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진학상담이나 취업지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3 수험생이 자신에 대한 주변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부담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학교성적→대학입학→좋은직장→행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에 대입시키기 때문에 학교성적은 “육매임”의 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공식은 바로 우리교육의 문제이며 또한 진로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 접근방법으로 실시하여 현행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고3 수험생이 “육매임”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격도야 및 품성개발을 위한 청소년 인격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성격지도, 이성지도, 사회성지도 및 인간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어 대상자들이 내적 통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강화시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도덕기준이나 가치체계를 습득하도록 하여 이를 친구관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며, 부모들에게는 이를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고3 수험생이 대입준비 과정에서 “육매임”의 상황에 영키어 방황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 비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방황하는 고3 수험생을 발견하면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 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와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가정내 불만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동료와의 인간관계 개선 및 학업증진을 위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고3 수험생이 “육매임”의 상황에서 폐쇄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해결로 방황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육매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주변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어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지닌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속

보다는 이해를, 설득보다는 경청을, 처벌 보다는 선도를, 이론 보다는 실천을, 혐오 보다는 인내와 끈기를, 사고후 조정 보다는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함으로써 고3 수험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정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수험생이 나타내는 반응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고3 수험생의 대입준비 경험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육매임"의 해결과정으로 나타났으며 근거자료 분석 과정에서 찾아낸 범주들은 불안, 부담, 억압, 치열, 도리없음, 숨막힘, 학기별, 기대수준, 성적분포, 다부짐, 나약함, 도움됨, 방해됨, 지켜봄, 참견함, 추스림, 의지함, 어울림, 벗어남, 내뿜음, 그만둠, 홀로지냄, 빠져들, 가다듬음, 나아감, 시달림, 속상함, 괴로움, 팽개침등 모두 29가지 이었다. 이들은 다시 위압, 육매임, 학기, 주변기대, 성적, 의지력, 친구, 가족성향, 개방적대처, 폐쇄적대처, 정진, 방황등의 12가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이 중에서 도리없음과 숨막힘은 핵심범주인 "육매임"으로 범주화 되었다.

고3 수험생의 "육매임"은 생성, 표출, 해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매임"의 상황에서 풀려나 학업에 정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육매임"의 상황에 엉켜 방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16가지의 가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1) 고3 학기가 1학기 초일수록 "육매임"은 약해질 것이다.
- (2) 고3 학기가 2학기 초일수록 "육매임"은 강해질 것이다.
- (3)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육매임"은 약해질 것이다.
- (4)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육매임"은 강해질 것이다.

(5) 주변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육매임"은 강해질 것이다.

(6) 주변기대 수준이 낮을수록 "육매임"은 약해질 것이다.

(7) "육매임"이 약할수록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8) "육매임"이 강할수록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9) 의지력이 강할수록 "육매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0) 의지력이 약할수록 "육매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1) 친구들이 성실할수록 "육매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2) 친구들이 불성실할수록 "육매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3) 가족이 믿고 지켜볼수록 "육매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 것이다.

(14) 가족이 못믿고 참견할수록 "육매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 것이다.

(15) "육매임"에 대해 개방적 대처를 할수록 정진하게 될 것이다.

(16) "육매임"에 대해 폐쇄적 대처를 할수록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자료분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명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① 고3 1학기초에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육매임이 강할 때,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하고 친구들도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더라도 가족들이 믿지 못하고 일일이 참견하면, 육매임에 대한 폐쇄적 대처로 방황하게 된다.

② 고3 2학기초에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주변의 기대수준이 낮아서 육매임이 약할 때,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하고 친구들도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가 되면 가족들이 믿어 주면서 지켜보더라도, 육매임에 대한 폐쇄적 대처로 방황하게 된다.

③ 고3 2학기초에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주변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육매임이 강할때, 친구들이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를 주더라도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하고 가족들이 믿어 주면서 지켜봐주면, 육매임에 대한 개방적 대처로 정진하게 된다.

④ 고3 1학기초에 성적은 중위권이지만 주변의 기

대수준이 적절하여 옹매임이 약할때, 대상자의 의지력은 약하지만 친구들이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 가족들이 믿어 주면서 지켜봐주면, 옹매임에 대한 개방적 대처로 정진하게 된다.

대상자의 성적, 학기 및 주변기대는 고3 수험생이 경험하는 "옹매임"의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강도가 결정된 "옹매임"은 대상자의 의지력, 주변친구, 가족성향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결되었다.

고3 수험생이 "옹매임"을 경험할때 대상자의 의지력이 강한데 주변친구들도 성실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 가족들 또한 대상자를 믿고 지켜봐주면 대상자는 "옹매임"의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개방적 대처로 "옹매임"의 상황에서 풀려나 학업에 정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대상자의 의지력이 약한데 주변친구들도 불성실하여 학업에 방해가 되고 가족들 또한 대상자를 믿지 못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대상자는 "옹매임"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홀로삭이는 폐쇄적 대처로 "옹매임"의 상황에 영키어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옹매임"의 해결은 맥락과 증세상황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처지에 속상해하고 절망감과 소외감으로 피로워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팽개치며 방황할때 고3 수험생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3 수험생에 대한 간호중재는 "옹매임"의 상황에서 개방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당당한 성인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권혜진,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김경희,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 김광수, 소외와 문제행동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 김선미, 이강오, 고등학생들의 소외와 신체,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54-73, 1992.
5. 김소야자,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1990.
7. 김현수, 청소년 가족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과학, 12(3), 203-238, 1980.
8. 김환복,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가정환경적특성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9. 나철, 한국고교생에 관한 정신의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17(3), 259-269, 1978.
10. 노윤식,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1. 민병근, 이길홍, 수험생의 슬럼프 원인과 대처방안, 민병근교수논문집, 5, 187-197, 1987.
12. 백명기, 이길홍, 이규황 및 민병근, 대입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중앙의대지, 13(1), 1-27, 1988.
13. 안정순,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4. 이길홍, 입시를 앞둔 청소년의 정신건강, 오늘의 청소년, 9, 30-33, 1985.
15. 이길홍, 입원한 입시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의 임상양상에 관한 정신 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7(3), 441-463, 1988.
16. 최영희, 질적간호연구(93-127), 서울: 수문사, 1993.
17. 최윤진, 구창모, 정문성,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0.
18. 한동세, 고3병과 중3병, 신경정신의학, 11(4), 235-242, 1972.
19. 한승희, 확률모델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청소년 연구, 10, 38-52, 1992.
20. 한완상, 젊은이의 소외 및 이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79, 13, 1974.
21. Anderson, M. L., 이동원, 김미숙 공역, 성의 사회학 (218-21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22. Bowerman, C. E., and Bahr, S. J.: Conjugal power and adolescent identification with parents. Sociometry, 36, 366-377, 1973.
23. Bronfenbrenner, U.: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 In V. Vaughan & T. Brazelton(Eds.), The Family-Can It be Saved? N.Y.: Years Book Medical Publishers, 1976.
24. Chenitz, W. C and Swanson, J. M.: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Melano Park: Addison-Wesley Publishin Company, 1986.
25. Harris, I. D. and Howard, K. I.: Perceived parental authority: Reasonable and unreasonable. Jour-

- 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273-284, 1981.
26. Pfefferbaum, B.: Adolescence and Illness. Annual Review, 5.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400 K Street, N.W. Washington, DC, 1986.
 27. Lloyd, M. A.: Adolescence. New York: Harper & Publishers, 1985.
 28.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29. Rinsley, D. B.: Treatment of the Severely disturbed Adolescent. New York: Jason Aronson, 1980.
 30. Sarason, S. B. and Davidson, K. S.: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New York: Wiley, 1960.
 31. Solomon, P.: Handbook of Psychiatry. 3rd ed, 574-605. Lange, Asian Edition, 1974.
 32. Strauss, A. and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0.